

한국현대철학의 문제의식과 서양철학의 수용*

南 京 熙

1. 연구 목적과 방향
2. 서양의 총격과 서구철학개념들의 유입
3. 대학과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제도적 도입
4.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철학공간의 형성
5. 서구철학 수용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지향방향

1. 연구 목적과 방향

(1) 학문사 연구의 목적

본 과제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연구 「한국현대의 인문학 100년」은 학문사적 연구이다. 20세기 한국 현대'철학'의 학문사는 서구적 의미의 학문의 정착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우고 활동을 구성하는 것은, 인문학의 다른 분야인 국문학이나 국사학과는 달리, 서양의 철학이었다. 이런 성격으로 해서 한국현대철학의 초기는 서양철학의 수용과정이라 규정할 수 있다.

서양 철학의 수용은 자생적이고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한국 철학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서양의 것이 한국인의 인문적 정신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한국화되거나, 또는 한국의 정신이 서양철학을 통해 서구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구의 것은 서구의 것, 한국은 한국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한, 서구적인 것의 수용은 갈등과 분열만을 산출할 것이다.

보편성을 지닌 한국철학의 형성을 위해서는 서구의 철학을 수동적으로 수용만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지식인들이나 철학자들이 능동적이고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주체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구 철학을 한국적으로 변용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변용의 작업이 주체적이고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서구 철학을 무조건 비판하며 한국이나 동양 전통의 철학만을 고수한다거나, 또는 무언가 한국의 색다른 ‘독창적’ 철학을 만들어 내겠다고 작위적인 시도를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우리가 서구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해결에서 서양 철학의 이론이나 해법이 동양 전통 철학의 그것보다 탁월하다면 구태여 우리는 동양 철학이나 한국철학을 운위할 필요가 없다. 그런 태도는 문화적 국수주의에 불과하며, 정신적 문화적 후진국을 결과할 뿐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한국의 자주적 철학이란, 서구의 사유와는 다른 문제들과 시각 또는 관점을 제시하여, 동서양 인류 모두의 정신적 삶을 심화시키고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세계성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철학은 한국적인 전통이나 상황에서만 제기될 수 있는 고유의 문제들과, 세계와 사회에 대한 한국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서야 생겨날 수 있다. 한국이나 동양의 철학적 사고가 인간과 사회와 세계를 보는, 새로운 그리고 보다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시각과 문제의식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과 그에 대한 시도적인 해법으로서의 한국의 철학이론이 보편성을 얻을 수 있을 때, 진정 의미있는 한국 고유의 철학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서구 사상을 수동적으로 수용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물론 서구적 가치의 수용과 이해가 한국인의 삶을 서구화하고 근대화하여 풍요하게 할 수 있으며, 서구 사상의 수용은 그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적절한 변용을 거쳐 한국에서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낳는 데에 기여해야 하리라 본다. 창조는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구가 보지 못한 것을 동양이나 한국의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음이다. 현대 한국의 현실은 과거 한국의 현실과 다르고, 현대 서구의 현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현대 한국은 과거 한국과 연속적이므로, 같은 점이 있을 것이나, 현재는 현재이고, 그것도 다양하고 깊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재이므로,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서구의 문화와 철학을 수용하여 한국인들의 삶과 사고의 방식이 서구화되고, 우리가 서구적 이성의 논리를 따라 사고한다해도, 한국인들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서구적 삶의 원리와 가치들을 그 심저에서부터 우리 것으로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자신의 정신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한국정신의 과거를 지울 수 없으

며 성장과정에서 흡수된 우리 부모님들의 정서와 사고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떨쳐 버릴 수는 없고, 우리의 자연과 역사와 단절할 도리는 없다. 인간의 삶, 특히 정신적 삶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간적 계기들은 물의 흐름과 같이 상호침투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상호침투성이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는 어차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삶의 기억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모국어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인간의 삶에서 공기와 같다.

동양철학이나 한국철학 연구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는, 이를 통해서 동양과 한국에도 서구적인 문제의식이나 이론 또는 개념을 발견하고 확인하려는 경향이다. 동양의 문제의식이 서구의 것보다 깊고, 그 해법이 심오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태여 동양의 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모든 연구는 미래적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지, 과거의 반복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도로일 것이다. 우리가 동양이나 한국을 연구하는 목적은 서양의 것과 같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서양과는 다른 것, 서양인들과는 다른 사유틀, 문제제기의 방식,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된 사상과 철학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서양철학의 수용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 과거의 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철학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 정신사에 기여할 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도 막연하게나마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믿음이다. 특히 외국의 문물과 철학이나 사상을 수용할 때는 분명 진지하고 절실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된다. 철학적 문제의식이란 전통의 정신적 분위기와 연관성 속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과의 연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본 연구자는 서구 철학 수용과정에서 한국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을 천착함에 있어 두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이나 동양의 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나아가 정신적인 전통에서 볼 때, 서구 철학의 수용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둘째, 한국의 현대는 그 어느 국가에서보다도 더욱 다사다난하였으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헤일처럼 덮쳐 지식인들은 역사지경에 이르게까지 한 시대이었다. 서세동점, 개화,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서구문물의 유입, 서구의 기술문명의 충격, 왜정, 해방, 분단, 민족상잔의 전쟁, 분단의 고착화, 냉전적 이데올로기 대립,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극한적 대립, 쿠데타, 민주화 운동, 경제 성장, 등등. 이런 시대의 모습과 상황이야말로 진정 한국적 문제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런 시대는 필연적으로 지식인들은 물론 민중들에게도 절실한 문제들을 안

길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자는 서구 철학과 사상이 이런 문제들에 어떤 의미를 지니왔는지를 논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서양 철학이 어떤 계기로 하여, 그리고 어떤 경로로 수용되었으며, 그 수용의 자세와 문제의식을 시대적 상황과의 연관 하에 연구하고자 한다.¹⁾ 나아가 수용된 서구 철학이 한국현대철학의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영향을 주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유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각 분야나 주제 또는 개별 철학자들에 관해 발간된 번역서, 개론서,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 논문, 연구서의 양적 분포에 대한 통계적 연구; 2)한국에 도입되어 많이 논의되고 연구된 조류나 철학자들의 사상내용의 개관과 이들의 영향과 그 분야에서 활동한 개별 한국 학자들의 성과에 대한 분석; 3)서양 철학 수용에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당위적인 논의들이다.

필자는 이들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현대의 철학적 활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현대에서 외래철학사상 수용의 구조와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이런 연구에서 시대의 정신적 분위기, 시대의 문제의식과 과제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의 철학적 활동의 유형을 개관하고 위의 기준에 의거 이 시기 활동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이나, 사실적 연구, 또는 그 당시 활동했던 개별 철학자들의 사상내용을 검토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다. 이런 유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의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1차원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와 연구 방향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의 방향은 특정의 한국현대 철학자나 사상가를 검토하는 것일 수도,

1) 서양 철학의 수용에 관해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이 있다.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에서 1994-6년동안 3년간 집중적인 연구를 행한 바 있다. 그 밖에도 한국철학회, 철학연구회 등에서 학술발표회의 연구주제로 삼아, 다수의 학자들이 이에 관한 연구를 행한 바 있다. 이 연구들에 관해서는 참고문헌 참조. 그리고 다음 참조: 김재현, 「일제하부터 1960년대까지 맑스주의의 수용」, 137면, 각주 2,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5호, 1995. 이훈은 상당히 철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서양철학수용에 관한 양적인 지도를 그려주었다. 이훈, 「연구를 위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4호, 1994.

이번 연구를 행하면서 필자는 한국현대철학계에서 서양철학 수용과 연구에 관한 학문사적 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구 활동들을 분야별(독일철학, 영미철학, 철학사, 존재론, 윤리학, 인식론 등)로 개관하고 분석하는 것일 수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을 중심으로하는 이념적인 연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의 연구주제는 개항 이후 한국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학문적, 지적 활동에서의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은 이론적인 것일 수도, 민족 현실을 염두에 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것일 수도 있다. 본 공동 연구의 주제는 인문학이라는 학문 분야이므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활동이 중심이 된다.

현대 한국사는 수없이 많은 문제군들을 해결하며 넘어온 고도의 장애물 경기와 같다. 개항, 식민지체험, 분단, 전쟁, 빈곤의 일상성, 여러 차례의 정변, 쿠데타, 학생 혁명, 민중 항쟁, 냉전의 전초지로서의 역할 등등 엄청난 체험을 압축적으로 체험하고 해결하면서 한국의 현대사는 전개되었다. 현대 한국의 인문학은 이런 역사적 현실적 체험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인문학은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의 문제의식은 구체적인 현실에 깊숙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본다. 현대 한국의 인문학이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번의 연구는 그런 자기 성찰과 반성과 비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철학적 문제의식에 대한 본 연구자의 연구는 이론적 문제의식만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의식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문제의식이 이론적인 것일지라도 철저히 이론적인 진공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철학사나 이론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도 현실적 문제의식이 작동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는 이론적 문제의식의 검토에서도 그런 측면에 주목하였다.

둘째, 개별적 연구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중심으로 연구 조사 분석한다. 특히 철학적 사상적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단지 학문적, 이론적 수준의 것이었는지, 현대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 문제들과 연관되어 정립된 것인지를 검토해 본다.

셋째, 연구는 다음의 세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a) 하나는 보다 폭넓은 것으로 사상적 정신적 문제의식이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현대 한국의 정신적 정체성, 이념, 가치관, 공산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의 유입과 영향, 그 추이 등을 논한다. 서구 문화의 충격에서 사상과 철학을 담당하였던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b)다음 두번째 분야는 보다 좁은 의미의 철학적 이론의 수용과 그 연구 현황, 그리고 수용 및 연구에서의 문제의식을 검토한다. 서양 철학이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언론, 유학생, 일본인, 선교사)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일본, 대학의 교

과과정), 어떤 이유와 문제의식에서 도입되고 연구되었는가, 그리고 서구 철학의 제 조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수용되었는가의 문제들이다. 그동안 서양 철학 수용의 초기 단계에서 주로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은 독일 관념론, 미국의 실용주의, 분석철학, 맑스주의, 서양고전 철학 등 이었다.

(c) 마지막 분야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였는가의 문제이다. 한국 유학자들의 서구 사상에 대한 대응방식이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비판의 방식과 내용을 논의한다.

네째, 서구의 문물의 충격은 한국의 지성인들에게 어떤 종류의 절실한 문제의식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 문제의식은 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애국적, 계몽적, 민족주의적, 독립지향적이었다. 가령 맑시즘은, 많은 피식민국가에서 그러했듯이, 맑시즘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관심에서라기보다는 민족 운동, 독립운동의 철학적 기반이자 이론적 구심점으로서 이해 차용되었다. 전반적으로 초기 서양 철학의 수용과 이해는 전통의 동양철학의 학문적 이론적 문제의식에서 동기지위지기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 충격으로 다가온 강력한 서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서구의 과학적 이성과 민주주의적 정치 사회제도에 대한 동경 등에서 유발되었다.

(3) 한국현대철학에서 학문사 연구의 특수성

서구 철학의 수용은 서양 정신의 수용이다. 그래서 초기 서양 철학의 수용과정은 철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정신사적인 관점에서 평가될 것이다. 다른 인문학문과는 달리, 철학의 경우는 이런 점이 중요하다. 국문학이나 역사학은 국적성이 분명한 학문이다. 그러나 철학의 경우는 다르다. 철학의 여타 학문과의 차이는 둘이다.

첫째, 한국 철학계나 사상계에 끼친 서구의 영향은 서구 정신의 수용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서구 철학은 단지 서구의 철학에 대한 이론적 관심에서가 아니라 서구 정신과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전통의 국문학이나 국사학계에서 서구적인 것의 수용은, 문학이나 역사를 학문으로서, 이론적 탐구로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학문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학문이라는 새로운 지적 활동의 존재를 인지하며, 서구 학문의 방법론 등 서양 철학의 수용은 단지 철학계 내부의 활동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계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졌다. 철학의 이런 성격으로 하여

서구 철학과 사상은 단지 강단의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언론, 사상가, 독립운동가, 계몽사상가들,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수용되었다.

철학계 역시 자신이 연구하는 철학이 어떤 현실 연관성을 지니는지, 한국의 정신, 한국의 이념과 가치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으며 서양 철학을 수용하고 연구해왔다. 실제로 다수의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현실에 참여했다.

미국과 같이 학문 인구가 많은 나라, 전문 철학자들의 수가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기만명에 이르며, 전문학회의 회원만도 기백명에서 기천명에 이르는 곳에서 철학은 철학계 내의 이론적인 활동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학계에서도 실천철학의 경우는 현실과의 연관성을 끊임없이 묻고 있으며, 그들의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철학이 행해지고 있다. 롤즈나 노직 등의 정치철학과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 논쟁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둘째, 철학은 문학 또는 국문학, 그리고 역사학 또는 국사학과는 달리 보편학이다.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서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학적 활동이 동양이나 한국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우주, 세계, 인간, 사회에 대한 개념적 사고의 전통은 동양에서도 상당히 오래다. 경성제대에 철학과가 생긴 이래 아직까지 주로 서양철학들이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철학자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요사이에는 동양철학과목을 늘리기는 하지만, 서양 철학이 교과과정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현재의 철학과를 서양철학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지도 않는, 한 중요한 이유는 철학의 보편지향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철학학문사 연구의 특수성과 현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필자의 연구에서 시계적 구분은 다음과 같이 했다.

과거: 19세기말 개화기 - 60년대 말

현재: 70년대 초 - 90년대 말

미래: 2000년대 이후

과거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유는 본 연구의 주 관심이 현재를 점점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할 때, 현재대에 해당하는 것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일 것이다.

과거는 다시 3기로 나뉜다.

과거 1기: 19세기말 개화기 - 한일 합방직전

과거 2기: 일제 식민지시대 - 해방

과거 3기: 해방 이후, 분단과정, 60년대까지의 현대한국국가 건설기

이번 연구의 기간은 3기로 나뉘는 과거이다.

2. 서양의 충격과 서구철학개념들의 유입: 문제의식의 시대성

이 시기는 개방에서 한일합방기까지의 과거 1기를 이룬다. 이 시기의 서구철학 수용과정은 타인에 말을 걸며,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그를 이해하려는 과정, 나아가 그의 생각을 수용 또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확대 심화해가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의 노력은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일상적인 대화와는 달리, 개인적 단위가 아니라 문화권이나 그 문화의 정신세계라는 집단적 전체로서 그 노력이 경주되었다. 물론 이 집단적 대화와 이해의 주체는 개인들일 것이나, 이 개인들은 다시 철학사상과 문화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런 주체적 존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

문화 전체, 한국의 정신세계 전체 역시 개개인들의 활동에 의해, 그리고 그 결과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피동적이나, 개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주체로서 기능하는 측면을 지닌다. 개인의 활동은 전체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문화의 형성, 사상의 전개, 철학적 활동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 속에서 타자들과 총체적인 연관을 맺으며 이루어진다. 그런 고로 개인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그 전체의 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영향받는 것이다. 위에 제안한 바와 같이, 한국현대철학의 과거를 3기로 나누고, 한국현대철학에서 이 각각의 시기가 지니는 의의를 분석, 평가하고 규정해보기로 하자.

과거의 3기 각각을 우리는 「서양의 충격과 서구철학개념들의 수용기」, 「대학과 철학이라는 학문의 제도적 도입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철학공간의 형성기」로 규정하고, 시대의 문제의식과 학문 자체의 문제의식과의 상관성을 주목하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문화는 흐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두 서로 다른 문화는 상호 이해와 대화, 수용에의 노력을 하기 마련이나, 20세기 한국현대철학이 서양철학을 수용하는 과정은 동서의 대화라고 할 단계는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동양이나 한국의 지식인들은 서양철학의 개념과 이론들을 배우고, 그것을 이해 수용하려하였다. 그것은 마치 낯선, 그러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타자들의 말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내재화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철학도들은 서구철학과 소통가능성, 이해가능성, 내재화가

능성을 탐색하여 왔으며, 그런 노력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도 그런 활동의 일환일 것이다.

(1) 시대의 모습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 서구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한제국이 존속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한국 역사의 격변기라 할 수 있으나, 다른 격변기와는 달리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시기는 첫째, 조선의 쇄망과 함께 한 정치체제가 붕괴된 시기이며, 둘째, 이런 한 붕괴가 내적 분열 또는 내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단지 한 왕조가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한국 역사 전체가 그 정신의 심저에서부터 변화를 강요당한 시기이다. 셋째, 외세의 침입은 정치 군사적인 것을 넘어서 문명 문화사적인, 실로 정신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를 침탈한 외세는 서구의 문명과 문화를 들여와, 우리에게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였으며, 이런 충격은 한민족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보게 하였다. 이 시기는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변혁의 시기였다. 조선민족은 1900년대까지 4000년동안 왕조의 교체, 외세의 침입, 외래 문화와 사상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여 왔었다. 그러나 1800년대 후반부터 물밀 듯이 유입되는 새로운 문물, 정신, 사상들은 한국의 정신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스케일로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런 충격은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후속적인 변화의 바람과 충격파들을 연속적으로 몰고 왔다. 한일합방, 식민통치, 서구적 문명과 문화의 제도적 도입, 간접적이기는 하나 2차대전예의 연루, 공산주의이념의 유입, 해방, 분단, 전쟁, 분단의 고착화, 현대한국국가건설기의 혼란 등등.

서구 문물의 조선반도예의 유입은 보다 거대한 물결의 한 부분에 불과하였다. 수천년동안 본격적인 교류를 갖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접촉하게 되었는데, 이 접촉은 교류라기보다는 서구에 의한 동양의 침탈, 또는 계몽과 교화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동양은 서구의 문명과 문화, 그의 영향을 받은 일본 등에 대해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이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은 주변국의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전혀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서양의 것이었으므로, 그리고 그 문명과 문화는 강력한 물리적 힘을 동반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

격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 힘은 결국 한민족으로 하여금 국권 상실의 아픔을 겪게 하였다. 한반도를 식민화한 일본은 자신의 문화와 문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서구의 문화와 문명을 다른 아시아국가들보다 일찍 수용하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으므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식민화할 수 있었고, 조선은 그런 문화와 문명,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련해 줄 수 있는 힘을 결여하고 있었으므로,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각축하고, 일본에 의해 식민화됨에도 아무 실질적인 저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이었다.

이 당시에서 시작된 서구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50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적, 제도적 정착, 6-70년대에는 경제적 근대화, 80년대에는 민주화라는 활동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라는 서구적 이념과 가치들이 한국인들의 사고와 실천의 주축으로 정착하여 한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등의 모습으로 서구화는 진행이 되고 있다. 한국현대에서 서양철학의 수용도 이런 서구화의 일환이었다. 이 시기 철학도들의 문제의식은 서구를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시대의식의 일부이었다. 흥미있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중산층의 의식이 형성된 연후에 비로소 한국 정신과 철학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주요 철학적 활동

1910년 경, 李定稷의 『姜氏哲學說大略』이 발간되었는데, 그는 이 저서에서 칸트의 철학을 윤리적 관점에서 주자학과 비교하였다.²⁾

1912년 경, 李寅宰은 『希臘古代哲學攷辨』을 저술하여, 회랍철학을 중심으로 서구의 철학개념 소개하고, '철학을 삼라만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이라 설명하였다.³⁾

全炳薰은 『精神哲學通編』을 통해 칸트의 도덕철학과 영구평화론을 소개하였으며, 李炳憲의 『儒敎爲宗教哲學集中論』은 유교와 서양철학을 비교하였다.

이들 서양철학에 관한 도서들은 일본이나 중국의 서적을 기초로 하여 서양철학자들의 사상을 요약하고, 나름의 논평을 행한 것들이다. 이들 저서들의 내용들은 선행 연구에 의해 소개된 바 있으므로⁴⁾,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2) 박종홍, 「이정직의 『칸트』연구」, 박종홍전집 5권, 257면.

3) 백종현, 「서양철학의 수용과 한국의 철학」, 1면, 『철학사상』, 제5호, 1996; 박종홍, 「이인재론」, 박종홍전집 V, 1980, 형설출판사, 443면;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1987, 동명사, 하, 351면 참조.

(3) 철학개념의 심층적 의미와 표층적 의미: 의식과 개념의 진화

초기 서양 철학 수용기에는 당연히 본격적인 학문적 활동이 전개될 수 없었다. 서양 철학의 수용은 서구의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당시의 문제의식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없었고, 교육적, 계몽적, 독립지향적, 수용적이었다. 한국현대철학 초기의 선구자적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은 시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철학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런 시대를 사는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은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것일 수도 없고, 이어서도 안된다 말할 수 있다.

이 당시의 철학활동이라는 것은 서양인들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고, 서구적 의미의 '철학' 활동을 한국 지식인들과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서구적인 것을 피상적이고 개론적으로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의 저술들이 유포되고 독서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정신적 활동과 그 결과를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들, 서구 철학의 개념들이 도입되어 한국어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는 점이다.⁵⁾ 그리고 서구의 주요 가치와 이념, 이론들을 언론계와 교육계 등에 소개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한국인의 의식변화에 주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들 개념들이 일본을 통해 들어온 번역어의 수준에 머물렀다 해도, 새로운 개념들과 이들이 동반하는 논리의 도입은 정신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구철학의 개념들은 서서히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착근하면서, 한국인의 사고를 규정하고, 한국인의 사고가 흐를 수 있는 수로를 형성하게 된다. 이제 한국인들은 초기 철학자들에 의해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의 개념들에 의해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적 개념의 사용만으로 한국인의 의식이 바로 서구화되고, 서구철학사에 편입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개념들은 언어적 진화의 소산이고, 이 진화의 과정에서 개념들은 의미의 두터운 층을 형성하며 그 의미의 층은 구체적 언어활동에서 살아나야, 우리의 의식, 사고, 정서, 행동을 움직이는 규정성의 연원이 된다.

이 시기에 도입된 서구 철학의 어휘들은 번역어이었으며, 외면적으로는 한국

4) 이현구, 「개화기 유학자와 계몽운동가들의 서양철학 수용」,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4호, 1994.

5)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 참조: 강영안, 「한국철학과 언어문제--철학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철학회 편, 『한국현대철학 100년의 생애와 과제』, (한국철학회 99춘계학술대회보), 1999.

어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아직 외래어였다. 그 어휘들은 한국인의 정신 표면에 서만 소통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 의식에 가하는 힘도 표층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인의 서구철학과의 대화 역시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 서구철학의 개념들은 한국인에게 아직은 의미충전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개념들의 심층적 의미가 지닌 환기력과 연상력 등은 적절한 문장, 문맥, 담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개념들의 의미충이 한국인의 의식세계 속에 파고 들 수 있을지, 즉 심층적 의사소통과 이해, 나아가 내면화가 가능할지의 여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확인될 수 있는 일이다. 이들 서구철학의 개념들이 우리 정신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진로를 수정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을 생성하고, 이들 개념의 의미를 충전시킬 문맥이 한국적 담론 구조에 착근이 되어야 한다.

언어는 진화한다. 진화의 과정에서 개념들, 문장들, 이론들은 새로운 환경을 만나, 자신의 생존능력, 소통가능성, 이해가능성, 새로운 언어적 생태계에서의 착근가능성, 보편화가가능성을 시험받게 된다. 물론 기존의 개념들이나 문장들도 한반도의 문화적, 정신적, 철학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그 생존가능성을 시험받게 된다 할 수 있다. 새로이 도입된 서구철학의 개념들이, 한국의 정신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에 침투하여 한국인의 사고와 실천을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역으로 조선조에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의 수로를 제공하였던 전통의 언어나 철학이 더 이상,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1기에 이들 전통의 언어, 전통의 사고법은 완전히 도태된 것은 아니었으나, 서구의 물결에 덮혀 잠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살아나 한국인의 삶을 위한 규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타진 검토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서구철학의 수용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서구철학의 개념들은 아직 한국인의 심층적 의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는 자각과 함께, 동양적인 것의 재수용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서 시도된다. 그 어느 철학도 철학의 본성상, 완전하지 못하다. 서구철학이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적 사고 틀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우리는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고, 담론 장의 규칙을 변경하면서, 담론의 장을 확대할 필요를 느낀다. 관점의 조정과 변경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자각에 따라 동양적인 것, 한국적인 것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3. 대학과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제도적 도입 : 시대의식과 학문적 문제의식의 연속성

(1) 시대의 특성

이 시기는 한일합방에서 해방까지의 시기로, 과거 2기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이다. 이 식민통치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 한민족은 민족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해방 독립을 위해 기댈 정신적 사상적 의지처를 찾게 된다. 일부의 민족 지도자들은 무력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무력보다 근원적인 독립의 수단은 계몽과 교육이라는 것이 많은 지식인들의 판단이었다. 교육과 계몽을 위한 교과과정의 내용은 전통적인 것보다는 서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선택적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다양한 서구의 철학사상들이 소개 유입되었지만, 특기할 것은 한국인의 미래 삶에 심중한 영향을 끼칠 서로 다른, 대립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두 정치철학적 이념이 수용되어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시대적 문제의식과 연관하여 도입된 것이기에 다른 어떤 서구의 철학사상보다도 일찍 그리고 깊숙히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내면화될 수 있었다. 그 하나는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였으며, 다른 하나는 소련 등으로부터 유입된 공산주의이었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서구 강대국의 이념으로서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가능하게 한 사상이었다. 서구화를 통해 힘을 키우고자 하는 한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이 이념들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의 일부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은 유럽에서 후진국의 처지에 있다가 일약 혁명에 성공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가 이념적 지주의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성공은 피식민국가들로 하여금 독립의욕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의 이론적 기반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많은 민족주의적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였다. 과거의 소련과 유사한 처지에 있으며, 서구문명에 힘입어 한국을 식민화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일본으로부터 해방 독립을 쟁취하려는 한국의 지식인으로서는 이 공산주의가 서구의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보다 더욱 호소력을 발휘하는 이념이었다. 일본제국은 이념적으로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적이었고, 그런 고로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독립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호소력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호 이질적이고 대립적이기까지 한 두 사상의 유입과 영향은 결국 20세기 한반도, 한국현대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둘째, 일본 총독부에 의한 제도의 개혁이다. 그 개혁의 의도는 식민통치를 정착화하고, 착취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었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 개혁의 내용은 서구적인 것의 도입과 정착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서구적 의미의 대학들이 한국 지식인들의 교육을 떠맡게 되었으며, 서구식의 학문활동이 제도화되고, 서구적 내용의, 그리고 서구식의 교과과정과 교육방식이 이식되었다.

식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서구적인 것이 수용되었다면, 서구적인 것의 유입과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을까 하는 것을 흥미있는 상상의 대상일 것이다. 여하간에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식민통치에 의해 그런 서구화가 보다 강력하고 전면적으로, 그리고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강제성 때문에 서구적인 것의 수용이 의식의 내면에서부터, 한국인의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고, 외형적으로, 어느 경우 저항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2) 주요 철학활동 및 철학과 관련된 변화

1923년에 경성제대가 설립되고⁶⁾, 1926년에는 철학과가 개설된다. 이를 통해 28년 6인, 30년 5인, 31년 8인, 32년 3인, 33년 6인, 등 5년 동안 28인의 철학도들이 배출되었다.

경성제대의 당시 교과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⁷⁾

27년, 법문학부에, 철학철학사, 지나철학(중국철학), 윤리학, 심리학, 미학미술사, 교육학교육사, 종교학종교사가 설정되었다.

28년, 윤리학전공자, 심리학전공자, 종교학종교사전공자 등의 구분이 생기면서, 윤리학전공자학수과목으로, 다음의 과목들이 설정되었다: 윤리학개론, 윤리학사, 윤리학특수강의, 윤리학강독습. 지나철학전공자전수과목으로, 지나철학사개설, 지나윤리학개론, 지나철학급철학사특수강의, 지나철학, 지나윤리학강독 습, 지나어가 설정되었으며, 미학미술사전공자들은 전수과목으로, 미학개론, 미학

6) 경성제대보다 먼저 보성전문, 이화전문, 연희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7) 『경성제국대학 일람』, 364면.

연습, 미학특수강의,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를 수강해야 했다.

29년, 철학, 철학사전공자전수과목으로, 철학개론, 서양철학사개설, 논리학인식론, 철학연습, 철학특수강의가, 윤리학전공자전수과목으로, 윤리학개론, 윤리학사, 윤리학특수강의, 윤리학강독습연습, 그리고 지나철학전공자전수과목으로, 지나철학사개설, 지나윤리학개론, 지나철학급철학사 특수강의, 지나철학, 지나윤리학강독 습 연습, 지나어로 이전과 별다른 바 없다.

이런 교과과정은 30년대 초까지 별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흥미있는 것은 1936년도 규정을 보면, 철학과 수업과목으로, 다음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철학, 심리학, 미학, 교육학, 사회학, 윤리학, 종교학, 미술사, 지나철학.

경성제대보다 먼저 1917년 설립된 연희전문학교의 경우를 보면,

1921년, 교과과정에 논리학, 철학개론, 윤리학 등이 설정되었다.

1922-37년까지는 철학개론, 논리학, 철학사, 윤리학 등이 한국인과 일본인교수에 의해 강의되었다.

37-45년까지, 철학개론, 논리학, 윤리학이 강의되었다.

이 시기에 발간된 도서로는 스위스에서 유학한 이관용의 『의욕론』, 백성옥의 『불교의 형이상학』 등이 있다. 안호상은 『관계문제에 대한 H. 로체의 의미』로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와 헤에켈 소개를 소개하는 한편으로, 1942년에는 『철학강론』이라는 신칸트학과 류의 개론서를 저술하였다. 이 저서에서 특기할 것은 철학 용어를 한국어로 옮기려는 선구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1929년에 경성제대의 학보인 『신홍』이 6호까지 발간되어, 독일철학을 소개하는 논문들을 게재하였다. 이 잡지의 필자들은 김계숙, 안용백, 신남철, 권직주, 소철인 등이었다.

1933년에는 최초의 철학연구회가 결성되어 학회지인 『철학』을 3호까지 발간하면서, 박종홍, 이종우, 김두현, 이인기, 박치우, 전원배, 안호상의 논문을 실었다. 이들의 논문은 문제지향적인 논문들이었으며, 서구철학 중심의 것으로 전통철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미국 철학박사인 한치진이 1936년에 『철학개론』이라는 최초의 한국어 철학개론서를 내어, 영미 경험론적 지향을 보인다.

이때 벌써 서구로 유학하여 서양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되었다. 그들은 안호상, 한치진, 이관용 등이었다.

대학의 설립은 한국현대철학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구적 학문 분류에 따라 전공이 개설되고, 그에 맞추어 교과과정이 설정 개설됨으로써, 한반도에는 비로서 서구적 의미의 학문적 활동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학과 전공의 설립, 그리고 교과과정의 개설과 강의가 바로 서구적 학문의 이념이 한국 사회에 수용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변화의 의의는 서구에서 유학한 한국인이나 일본인 교수들에 의해 서구철학의 내용이 강의되면서, 한국인들이 서양철학 개념들에 친숙해지고, 이론을 소개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적 의미의 토론, 탐구, 진리, 논쟁, 증명과 정당화, 지적 탁월성의 이상, 객관성의 입증 등, 서구철학을 전개하게 하고, 형성하게 한 주요 가치나 이상들이 이해되고, 한국 정신세계에서 주축적인 가치로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서구 학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식민시대의 철학과 교과과정을 보면, 26년 철학과 개설이후 45년까지 20년 동안 주로 개론, 논리학, 윤리학, 등의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과목들이 주로 강의되었으며, 동양의 사상적 전통이 지나(중국)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되었다는 점이다. 철학전공자들의 수도 5년간 28인 정도의 수이었으므로, 철학의 세부 분과들이 강의 연구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 시기는 학문적 측면에서는 철학이라는 서구의 학문이 소개 교육되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중국사상이 지나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되었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서구의 철학이라는 학문이 동양의 유교, 도가 등의 사상과 유사한 종류의 지적 활동이라는 점이 인지된 것으로 보인다.

학문적으로 보아서는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나, 수편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학술지까지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특기할 만한 일이다. 26년 철학과의 개설된 지 3년만인 29년에 『신훈』이 발간되어 서구적 의미의 철학논문이 게재되었으니, 소수이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철학도들의 학문적 열의나 서구 철학의 수용력은 주목할 만 한 것이었다. 해방후 철학회가 결성되고 학술지가 발간된 것은 거의 10년 후라는 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미미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서구 철학과목들이 정식으로 대학에서 강의됨으로써 서구의 철학개념들이 제도적으로 유입 교육되어 한국 지식인들의 공식적인 어휘들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 1기에 이미 서구철학의 어휘들이 다량 도입되었으나, 그것은 소수의 개인적인 저술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도서들의 독자층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의 교과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교육된 서구의 철학개념들을 사용하여

한국의 지식인들은 인간과 사회, 세계를 보고, 자신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게 되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이 서구철학의 개념들에 의해 서구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 수용되고 사용된 서구적 개념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와 사고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시 문화와 지식의 공급자요 교육자로서 또는 지도층으로서 역할하였으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은 당연히 그 당시 그들의 학생들, 그들 글의 독자들에게 의해 수용 사용되기 마련되며, 그리하여 서구적 개념들과 담론의 방식은 전 사회에 확산될 수 있었다. 개념들은 자신의 내부에 다양한 함의들, 의미연관성, 연상력과 환기력을 동반하며, 문법적 논리와 구조를 그 사용자들에게 강제한다. 서구적 개념들의 유입과 사용은 그런 고로 적어도 의식 표면의 수준에서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서구적 함의와 규범들에 의해 제약 규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개념들의 도입은 삶의 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아, 개인, 주체, 독립, 자유, 정의, 평등, 인권, 철학, 존재, 대학, 윤리,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낯설은 개념들이 이제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을 위한 어휘들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2개의 철학학술지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철학을 전공의식을 가지고 학문적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는 본격적인 활동이라하기는 힘들 것이나, 최초의 서구적 의미의, 전공으로서의 학문적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1기에 도입된 서구철학은 서구 문명 전체의 일부로서, 서구적인 정신과 사상의 일부로서 들어온 것이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유교 사상은 삶의 방식의 하나로서, 실천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학습되었다. 조선의 시대에 유학은 모두가 배워 실천해야 할 국가적 이념이자 조선적 삶의 방식의 주축을 제공하는 사상이었지, 그를 전공하는 일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일 수는 없었다. 한국전통사회에서 철학이라는 것, 사상이라는 것은 원래 모두의 것이었다.

대학의 설립과 철학과와 개설, 그리고 고유의 교과과정의 개설과 교육은 철학과 사상의 학습하고 연구하는 자세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흥미있는 것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목들은 『신흥』의 경우 주로 인물 중심이었으나, 『철학』의 경우는 주제 중심의 것이라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학술적인 수준에서의 연구 중심은 아직 이론적 주제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주제보다는 인물중심이었다. 역시 이런 경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철학과와 개설에 의해 철학이 전공으로서의 영역과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었

으나, 아직 철학계라는 것이 형성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철학계 자율적인 활동이라 할만 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당시의 철학교육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논문과 저서의 등의 철학적 저술의 저작은 철학적 활동으로서보다는 철학이라는 서구적 학문 활동, 정신적 활동을 소개하고, 그에 익숙해지며, 그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의 연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볼 때, 당시 서구철학의 수용은 과거 1기에서와 같이 서구사상의 수용, 서구 문화의 수용, 서구적인 것의 수용이라는 폭넓은 활동의 일부이었다. 그런 활동이 대학을 통해 제도화되었다는 차이일 것이다.

(3) 학문의 제도화와 시대의 문제의식

이 시기 철학적 활동의 의미는 대략 세 가지로 집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이 안고 있었던 세 가지 문제의식이나 과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당시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철학계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던 사정은 철학도들이 문제를 설정하는 방향에 영향을 준다. 설혹 당시의 철학계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고유의 문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한국의 철학도로 하여금 시대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철학의 추상적이고 고매한 이론을 탐구하는 데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철학도로서의 문제의식은 철학적 활동에서나 철학외적 활동에서나 시대의 문제의식, 전통적 폐습의 청산, 대중의 계몽, 조국의 해방, 근대적 국가 건설을 위한, 인간과 국가를 위한 새로운 이념과 가치의 도입이라는 민족적 과제 속에서 형성되었다.⁸⁾

당시 그들이 안고 있던 과제들은, 1) 우선 과거 조선조의 폐습과 수구적 유교 전통 등을 청산하고, 전근대적 한국 사회의 자력갱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 즉 서구화와 근대화이다. 2) 한국인의 정신을 교육하고 형성하게 할 교육제도와 교과과정을 구축하는 일, 국민들을 계몽하여 깨우쳐, 서구적 의미의 근대적 시민으로 만드는 일이 다른 하나이다. 3)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민족적 숙제가 세 번째 과제이고, 4) 독립국가를 위한 국가이념과 사회 운영 원리의 도입이 마지막 과제이었다.

당시의 철학적 활동과 변화는 이들 과제의 성취를 위한 노력에 어떤 의미를

8) 다음 참조: 권용혁, 「서구철학의 수용과 '현실'개념: 신남철, 박치우, 박종홍을 중심으로」, 한국철학회편, 『한국현대철학 100년의 쟁점과 과제』, (한국철학회 99년계학술대회보), 1999.

지니는가 검토해보자. 대학제도가 한국현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제도화하면서 서구의 학문들, 특히 철학이라는 학문이 한국의 정신적 활동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위 첫 번째, 두 번째 과제와 관련된다. 대학, 철학과, 교과과정 등을 통해 서구의 철학사상이 체계적으로 한국인의 정신에 수용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를 보는 서구적 사유틀과 개념들이 전통의 유교적인 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제 인간을 삼강오륜이나 충효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인, 권리, 자유, 평등, 정의, 행복, 사랑 등 서구의 윤리적 개념을 통해서 규정하고 서구적 가치를 지향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나아가 대학 제도를 거쳐 양성된 지식인들은 해방 후 한국의 교육제도 구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 시기의 변화는 현대 한국인의 정신적 지향과 한국현대철학의 방향설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방후 한국현대는 일제가 식민통치시대에 제정 운영한 제도를 철폐할 수도 있었으나, 그대로 수용하여 서울대학교 등의 대학을 세우고, 서구적 학문활동을 본격적으로 한국정신계에 확립한 것은 서구적인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었다. 이 당시 철학도들은 학문적 활동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후대의 기반과 틀, 담론의 규칙과 개념들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미친 영향력은 기반적인 것이었다. 유교적 전통의 철폐는 대학 등 서구적 의미의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구적 학문과 교육제도의 도입은 서구적 교육과정의 교육을 의미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교철학이 지나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철학과의 주요 교육내용은 서구철학이었다.

(4) 대립적인 국가 이념의 수용

이 시기에는 2개의 중요한 철학사상이 유입되어, 민족 해방을 위한 이념, 나아가 독립 후의 국가 이념을 제공하게 되며, 그리하여 한국 정신계, 한국현대인의 삶 전체의 풍토를 위한 배경이나 전제를 형성하는데, 이 사실은 위의 세 번째, 네 번째 과제와 연관된다. 그 두 이념의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전자는 주로 일본을 통해서 유입되었다. 그리고 대학 철학과에서 강의되는 철학사상들이 대체적으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인 서구의 철학사상이었기에, 지식인들의 일부는 자유주의에 친화성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노동자 농민을 사

회변혁의 주도 세력으로 간주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회의 상층을 차지하던 지식인들의 상당수는 저항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는 피압박 집단을 옹호하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을 정당화주었다. 대중의 정신적 계몽과 교육보다는 정치적 독립을 우선시하던 민족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 서구 강대국에 맞서는 약소국의 저항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줄 수 있는 이념이 필요하였으며, 그런 이론으로는 맑스주의가 적격이었다. 맑스주의는 러시아에서 혁명을 성공시킨 바 있는 강력한 이념, 현실적 실현력이 있는 이념이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식민시대 한국 지식인들의 일부는 공산주의에서 해방과 독립을 위한 이념을 발견하였다.

현대 한국에서 서구철학의 수용은 일본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일본이 독일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현대 초기에 대학 등의 학문세계를 통해 주로 수용된 철학은 독일 철학이었다.⁹⁾ 그러나 이런 강단적 철학이론과는 별도로, 한국 사회는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의식세계의 기초를 마련해 줄 총체적 사상이나 새로운 국가이념이 필요하였다. 이전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던 유교사상은 파식민으로 귀착한 조선의 사상이었으니 비판과 청산의 대상이었다. 철학은 사상이고 정신적 가치와 관계되며, 한국현대의 정신적 분위기, 국가이념, 한국 현대인들의 지향가치와 삶의 원리와 관계한다. 한국현대철학은 조선조가 그러했던 것처럼, 건국이념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조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설정하면서, 조선조는 유교의 문화일 수밖에 없었으며, 불교적인 지적활동은 미미하였다 할 수 있다. 같은 논리가 한국현대에도 적용된다.

이런 사회의 요청에 따라 유입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상이었다. 이들 사상은 식민시대에는 불투명한 형태로, 또는 일제의 박해 하에서 지하에서 은밀한 형태로 수용되며,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자리잡아 간다. 해방과 함께, 두 사상은 극단적인 대립의 관계로 발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고, 급기야 분단과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다. 급기야 한반도와 한민족을 적대적 관계의 쌍방으로 갈라놓기에 이른다. 후반기 한국현대철학은 이런 상위의 이념과 사상의 우산 아래서 형성되었다.

해방후 전쟁까지 이념적 혼란기를 거쳐 북한은 사회주의이념에 의해 장악되고, 남한에서의 국가이념은 자유주의로 확립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좌파적

9) 독일철학의 수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통계 참조: 1915-1992년도 사이 철학자 연구문헌 중 상위 20위의 2/3. 1915-1992년까지 서양철학연구문헌 중 칸트(1위, 526편), 헤겔(2위, 409편), 하이데거(3위, 238편), 플라톤(4위, 222편), 맑스(5위), 비트겐슈타인(9위, 96편). 이훈, 「연구를 위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4호, 1994.

사유는 잠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한국현대의 국가이념으로 확립됨으로써 철학적 활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 특히 인문사회과학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요, 조건이자,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현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절반에 의해서만 채택되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반쪽의 이념이랄 수 있으며, 남한에서도 좌파적 철학과 사상을 억압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의 세계사적 변혁은 자유민주주의에 보편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현대한국의 주류적, 정통적 사상이자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조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주요 정치지도자들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현대의 철학을 논함에 있어서, 이의 기초를 제공한 일제 식민시기의 철학사상활동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문 철학도 이외에 필자는 이승만, 김구, 박헌영 등 정치지도자들도 주목하여야 한다고 본다.¹⁰⁾

4.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철학공간의 형성

: 시대의 문제의식과 학문적 문제의식의 분리

(1) 시대의 모습

이 시기는 과거 3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해방 이후, 분단과정, 70년대까지의 현대한국국가 건설기의 과정이다. 이 시기에 대학과 학문이 제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자유민주주의와 서구적 이성이나 학문적 활동의 개념이 정착되었다.

이 시기는 식민시대보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이었다. 일제 식민시대의 강압적 통치는 피압박의 고통을 강요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확실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자유는 모든 것을 불확실성과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시작해야 했다. 국가 건설, 이념의 정립, 법과 제도의 확립, 이념적, 정신적 동질성의 확보, 서구적 삶의 방식의 도입, 근대적 시민의식의 형성 등. 해방 후 70년대까지의 한국현대사는 도처에 장애물이 널려 있는 황무지에서 길없는 길을 만들며 달리는 승용차의 체험이었다.

10) 이승만과 김구의 자유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참조: 남경희, 『주체, 외세, 이념--한국현대국가건설기의 사상적 인식』, 이화여대출판부, 1995. 일제 하의 맑스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재현, 『일제하부터 1950년대까지 맑스주의의 수용』,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 5호, 1995.

분단, 이념적 대립, 민족상잔의 전쟁, 분단의 고착화, 두 개의 국가 성립, 극한의 빈곤, 정치파동, 4.19 학생의거, 5.16 군사쿠데타, 유신통치 등. 한국현대철학은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일식의 대학이념에 입각해 엘리트적이었던 일제하의 대학과는 달리, 해방 후의 대학은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대중교육의 정신 속에서 설립되고 교육되었다.

한국전쟁은 이념적 전쟁이었기에, 한국 사회로 하여금 이념과 사상에, 철학에 민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과 분단은 이념적 경직성을 강화시켜, 사상적 제약 속에서 이념과 철학을 연구하게 하였다. 해방, 그리고 전쟁 이후 남한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정착되었음에 비해, 사회주의 계열의 철학 사상에 대한 연구는 허용될 수 없었다. 이런 체제적 이념적 분위기는 한국의 정신적 풍토의 기본 방향을 정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적 가치와 이념들이 교육제도의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남한에서도 사상의 제약은 있었으나, 그래도 자유주의이념의 본성상 상당한 정도의 사상적 철학적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서구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기는 하나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수용 교육될 수 있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면서 사실상 철학적 활동은 철저하게 국가이념에 이론적 정당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만 역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3기의 철학적 활동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 하에서 이루어진 제약적인 것이었다. 한국 전쟁 이후 5-60년대 남한의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철학적 학문활동은 이런 정치 이념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크게 보아서는 이 틀의 제약을 받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 3기를 철학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고유의 학문적 문제의식을 형성해갔다는 필자의 규정에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평가는 과거1-2기와 비교해서 이루어진 상대적인 것이며, 과거 3기 남한의 이념인 자유주의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정치이념의 포괄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학문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철학의 문제의식은 시대의식과 분리 또는 괴리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과거 3기의 이런 학문의 관행은 80년대의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한 좌파 지식인들의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80년 대 후반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 연방의 해체, 동독의 와해, 동구의 자유화, 북한의 경제적 위기, 등을 거치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전세계의 지배적인 이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상황적으로 정당화된 측면도 있다.

(2) 철학적 활동

해방 후 대학이 설립되고, 철학과들이 생겨나면서 서구 철학 중심의 교과과정이 구성되었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대학들의 철학과는 서양 철학 전공자들의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과과정의 구성, 교육내용들도 거의 서양 철학 중심의 것이었다. 이런 사정들은 70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시정되기 시작하였다.

박치우, 신남철, 등 일부의 철학자들은 자신의 이념에 따라 월북하였으며, 일부는 남한에서 한국현대철학 형성에 기초를 확립하였다. 철학자들이 남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해방 후의 한국현대철학이 국가적 이념, 정치적 체제의 제약과 영향 하에서 철학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80년대의 세계사적 변혁과 함께 남한에서 연구되던 철학이 주류의 것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이념적 제약성을 면하고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으나, 이는 철학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념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서구 철학의 제 분과와 학파, 이론들이 본격적으로 수용 교육됨에 따라, 과거 1, 2기에 도입된 서구철학의 개념들이 문맥을 얻게 된다. 자유주의의 체제 하에서, 그리고 정치적 해방의 공간에서 사상의 자유를 얻은 한국의 정신은 과도하다 할 정도의 지적 호기심, 수용력을 보여, 맑스주의, 실존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실증주의, 서양고전철학, 과학철학 등의 다양한 이론과 학파의 사상들이 대학을 통해, 언론, 잡지 등을 통해서 유입하였다. 정치사상의 면에서는 해방 후 창립된 정당의 수가 200개에 이르렀다 하니 폭발적인 사상적 수용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철학계를 보면, 해방 이전에는 주로 독일 관념론이 주를 이루었는데 비해, 해방 이후에는 영미계열의 철학들이 수용되었다. 윤리학, 분석철학, 논리학, 서양고대철학 등, 수용 교육되는 서구철학의 범위가 다양해졌으며, 비로서 전공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50년대에 철학회가 구성되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한편으로 학술발표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면서 학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서 비로서 학회지가 지속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연구단체로서의 한국의 철학계가 구축된 기점을 철학회의 구성, 학회지의 지속적인 발간을 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의 철학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독창적인 저서의 저술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현대한국철학계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의 노력으

로 독일관념론, 영미분석철학, 고대철학, 윤리학 연구를 위한 소규모의 학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철학적 활동의 질이야 논하기 힘들 것이다. 분단의 상황에서,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철학을, 학문에의 열의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이 어찌면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것도 식민통치 하의 열악한 상황에서 도입된 서구의 철학이 분단, 전쟁, 폐허를 거치면서도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제 식민지시대에는 대학교육이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개방되었던 데 반해, 해방후 대학교육은 미국의 대학이념의 영향을 받아 만인을 위한 대중교육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량의 대학생들과 학문 전공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학문활동을 위한 양적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개론서 수준의 것일지라도 철학서를 위한 다수의 독자층을 마련해 주었다. 철학의 경우에도, 그 질이야 여하간에, 매년 기백명씩 서양철학 중심의 교과과정을 4년 이상을 접하고서 사회로 진출하는 철학도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한국현대철학계의 형성에 결정적이다. 한국사회도 학계가 구성될 수 있는 양적, 인구적 터전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규모나마 학계가 형성된 것은 다행이나, 이 학계는 폐단이 없지 않다. 학계의 폐쇄성으로 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호 교류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학문적 문제는 서구의 문헌 주석이나, 이해, 또는 서구의 문제를 그대로 들여와 논의하는 수준의 것으로, 상호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도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가령, 진리나 존재 또는 마음과 같은 주제에 관해 논의를 하더라도 사용하는 개념들이나 담론의 논리가 달라 전혀 상호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현대철학의 형성을 위해서는 동질적인 철학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런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념들이나 사유의 구조, 그리고 주제가 수렴되어 공유되어야 한다. 주제의 수렴, 사유틀의 공유를 위해서는 서구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여 논의해서는 되지 않는다.

독창적이고 고유한 한국현대철학의 형성을 위해, 그리고 전공철학의 지역별로, 독일, 프랑스, 영미, 고전식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각개 약진하는 전문 분과철학회가 주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욱 큰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동양철학계와 서양철학계가 하나의 학적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국적인 정신, 한국전통의 사상과 철학을 조희하고, 한국현대의 현실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3) 철학의 시대적 문제의식과 학문적 문제의식

일반적으로 시대 정신이나 분위기가 철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의 문제의식 형성과 수렴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세기 초 한국은 서양문물의 유입, 식민통치의 경험, 민주주의의 체험 등 시대적으로 심각하고 포괄적인 문제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이런 시대의 상황이 철학적 주제를 형성하고 수렴케 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오랜동안 철학적 활동이 진행되었음에도 이런 전통의 철학이 서구에서 유입 소개된 근현대적 의미의 철학과 연속성을 갖을 수 없었고, 나아가 주체적으로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기에는 한국철학계의 연륜이 너무 짧았고 그 인적 규모가 너무 미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철학 외적인 분야에서 철학 사상등은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서구의 주요 가치와 이념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인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현대 한국의 정치체제, 법과 제도, 도덕과 관습을 위한 이념적 틀과 현대 한국인의 정신과 정서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물론 이런 기여는 단지 철학자들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다방면의 지식인들, 언론인, 사상가들, 정치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미국, 프랑스, 로마, 중국, 조선조에서 철학과 사상의 형성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현대 미국 철학을 형성한 것은 대략 2가지 요인이다. 유럽으로부터의 논리실증주의와 이것이 담고 있는 자연과학의 성과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자유주의이다. 전자는 심리철학과 인식론, 논리학의 발전을 낳았다. 이런 과정에서 콰인, 셀러즈, 데이빗슨, 크립키 등의 탁월한 철학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정치윤리적 규범질서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개인주의이며, 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톨즈, 노직, 드워킨 등의 정치철학자들을 배출하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셀러즈, 퍼스 등 독일관념론의 영향을 받은 탁월한 철학자들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그들의 철학이 계승 연구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정신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독일적이기보다는 영국적이며, 관념보다는 경험, 형이상학보다는 과학과 논리를 중시하는 지적 분위기 속에서 철학적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인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여 선종이라는 교유의 불교를 만들어 내었다. 조선도 건국이념으로 유교사상을 내걸면서, 조선조의 정신적 분위기를 유교적인 것으로 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탁월한 유교철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고려조에서는 탁월한 유학자가 배출되기 힘들었으며, 역으로 조선조에서는 세계적인 불교사상가가 등장할 수 없는 것이다. 철학사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흔히 위대한 철학자는 홀로 그의 철학과 사상을 이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시대와 문화를 텃밭으로 해서 자라난 거목이다. 그는 자신이 성장하고 교육받으며 활동하는 문화권의 문제의식을 집약하여 정리하고, 그 문제들을 심화, 확대시킴으로써만이 탁월한 사상가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의 사상은 그 자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진들에 의해 연구 비판되면서 풍요해지고, 다양해지고 심오해짐으로써만이, 비로서 그는 위대한 철학자 사상이 될 수 있다. 무인도에는 천재가 없다. 홀로 있는 천재란 없다. 분위기가 배경이 형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만이 이 배경에서 형성된 문제의식을 집약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나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탁월한 개인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어느 하나가 없어도 세계 정신사에 기여할 수 있는 철학사상은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철학적 문제의식이란 전통의 정신적 분위기와 연관성 속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과의 연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학문의 특수성으로 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의 두 양상을 구분해야 한다. 철학은 다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과 같이 인간과 사회에 관한 성찰이니 만큼, 시대의 정신을 자신의 배경으로 해야 하며, 시대의 문제를 고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타의 인문사회과학과는 달리 보편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며, 보편적인 사상을 목표로 한다. 서양철학이 급속도로 한국과 동양에 유입될 수 있었던 것도 철학사상이 지닌 이런 보편성 때문일 것이다. 철학사상의 이런 보편성은 비단 20세기에서만이 아니라 신라시대 불교의 유입기, 조선조에서의 유학의 수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런 보편지향성에 더하여 서양 철학은 그 이론적 측면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측면이 있고, 이런 경향이 한국현대철학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동양에서 철학사상은 일종의 修養學, 修己學, 삶의 방식이었다. 이론과 실천, 지와 행을 분리하는 사고는 동양에서는 낯설은 것이었다. 동양적 사유는 지행합일 중시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더 근원적으로 동양에서는 학문의 이념 자체가 서양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유학자 또는 선비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시되었으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문공간이 실천과 삶의 공간과 확연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서구 철학의 이론적 경향으로 해서 철학적 사유에서 절대 진리, 존재 그 자체,

필연성, 확실성의 이념 등이 중요한 준거를 구성한다. 이런 특성은 철학으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학문공간을 구축하여 그 공간에서 상아탑적 활동을 추구하며 시대의식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시대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초연하여 독자의 학문적 문제의식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서양 철학계는 이론적 탐구의 역사가 오래 진행되어 이론과 실천의 분리가 정식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서구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국현대철학의 전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철학을 구체적 삶의 공간 속에서 시대정신과 분위기를 배경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직업으로서, 전공으로서 철학을 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런 경향은 당연히 이론과 실천의 분리를 촉진하며, 당연히 여기게 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한다.

둘째는 첫째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철학의 문제의식이 시대의 문제의식과 단절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조 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유학연구의 활동은 그들이 살던 시대와 삶의 문제의식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문제의식과 철학의 문제의식 간의 연속성은 개화기에 해당하는 과거 1기나, 과거 2기의 일제 통치 하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계의 일원일 뿐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로 자임하였고, 국민의 계몽과 조국의 근대화 및 해방의 과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학계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양적, 문화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시대 전체로 설정할 수밖에 없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연속성은 해방 후 과거 3기에 이르르면 서서히 상실되고, 시대와 철학의 문제의식, 무대배경은 단절되기 시작한다. 철학자들은 대학이라는 활동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그 속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하고, 이 공간 속에서 교사나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셋째, 과거 3기에서 주목할 것은 대학에서 전통사상의 위치이다. 해방 후 대학에서는 동양의 유교, 불교, 등의 사상이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수 연구되기 시작했다. 즉 동양의 사상적 전통을 서구적 의미의 철학이라는 지적 활동의 범주에 편입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동양의 사상에 제 위치를 찾아주며, 과거 1, 2기에서와 같이,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기여를 하게 하였다. 동양적 사유를 일종의 서구적 의미의 철학으로 간주됨에 따라, 양자를 비교하고 차이점과 유사점을 드러내고, 그리하여 동서 정신 간의 대화, 상호 이해, 나아가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의 사상이 서구적 철학과 같은 류의 지적 활동 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이 철학에 편입함으로써 동양에 대한 기초적 오해를 낳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분류는 동양사상이나 서양철학에 대한 피상적 이해, 그 기저에 깔린 사유틀의 차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을 같은 종류의 지적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서양 철학과 동양사상의 핵심을 간과하게 하는 근원적인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양의 사유를 서구적 관점과 기준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래 왔다. 동양인들은 서구인과는 언어가 다른 만큼 전혀 다른 사유틀을 지니고 있었을 수 있으며, 그들과는 문제 제기의 방식이 다르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인간, 사회, 세계를 전망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진리 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양이나 한국의 철학을 논할 때 과연 서구적 의미의 존재론, 인식론, 의미론을 전개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흔히들 동양의 사유를 비분석적이고, 논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방법론의 전개없이 직관에 의존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곤 한다. 이런 평가는 서구적 시각과 기준에 의거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런 편파성은 이미 동양적 사유를 서구적 의미의 철학과 같은 류의 지적 활동으로 분류하면서 배태된 것이다.

자유, 민주, 경제, 배분, 공정성, 과학, 이성, 평등, 정의, 권리 등 서구의 개념들은 이제 한국인의 어휘들이 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인의 정신, 사고, 정서,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흐를 수 있는 수로와 궤도를 제공한다. 아마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 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 수 서구 철학의 개념들은 그 유효성이 의심되면서, 한국인의 담론의 장에서 생존가능성이 점점되기 시작하였다. 한국현대철학의 언어게임에서 주요 장기알이었던 존재, 절대, 필연, 본질, 논리적 필연성, 정언명령, 실체 등의 어휘들을 생각해 보자.

서구의 철학개념들은, 모든 어휘들이 그러하지만, 우리 주위 세계를 투망하기 위해 고안된 어휘들이다. 그 어휘들이 세계를 올바르게 포착하여, 이 세계에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수로나 궤도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그 생존력과 유용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실험의 결과 그렇지 않음이 판정나는 경우, 그것은 도태된다. 이제 새로이 드러나는 현실, 생태적 환경, 이념적 경직성과 대결보다는 화해와 타협, 분석보다는 종합이, 비판적 이성보다는 감성적이고 수용적 이성이,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국지적 분석보다는 전체 패턴의 인지가 중시되는 총체성의 시대에 동양적 사고틀이나 개념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수로와 궤도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5. 서구철학 수용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지향방향

개화기에서 70년대까지 현대한국에서의 서구 철학과 사상의 수용과정과 그 성과는 어떠 했는가? 현대한국의 외래사상 수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현대사가 격동과 격변의 시기이었기 때문이다. 외래 사상의 수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체적 변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 전반,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현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한국의 20세기 100년간은 그야말로 숨가쁜 격변의 시대이었다. 20세기 자체가 격동의 세기이다.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어야 했으며, 동과 서가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아시아는 서구나 타 지역보다 더욱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의 아시아에서도 한국은 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한 변화를 빠른 속도로 겪으며 극복해 왔다. 서구의 충격, 조선의 병합, 서구 문물의 유입, 일본에 의한 피식민상태, 3.1 독립운동, 분단, 건국, 6.25 전쟁, 분단의 고착화, 극빈의 시대, 독재주의, 군사쿠데타, 유신,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항쟁, 군사정권의 종식, 정권교체, 풍요의 시대, 그리고 IMF 위기, 대량 실업의 시대, 등. 진정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셈이고, 앞으로도 달려야 할 것이다.

이런 시대에 철학을 논한다는 것은 한가로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외래 문화와 사상을 수용하고 이해하기도 바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답하고 가치 정향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서구철학의 주체적 수용, 창조적 변용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리일 것이다. 이 시기의 서구철학 수용은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평가할 수 있다. 서구의 철학의 우리의 정신적 사유틀에 맞는지, 우리의 전통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한국 현실의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지 못한 채, 그것들은 무작정한 수입되었다. 이런 관행은 어쩌면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초기 서양 철학 수용기에는 철학계 뿐 아니라 언론, 교육계 등이 주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서양 철학의 수용은 서구의 문화와 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당시의 문제의식은 학문적, 이론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교육적, 계몽적, 독립지향적, 수용적이었다.

과거 1기와 2기의 서구철학 수용은 서구의 충격 속에서, 그리고 식민통치 하에서 혼란 속에서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배출된 철학전공자들도 미미한 수에 그치며, 본격적인 의미의 연구활동이라는 것도 희소했다 할 것이다. 이 시기는 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과 유교, 불교 등의 지적활동과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서구 철학의 개념들을 수용하여 전파하고, 그리하여 한국인들의 개념적 지형도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이나 수준이 여하하건 간에 모든 것의 시작은 중요하다. 시작은 그 이후의 것들의 기초와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과거 1기의 학문으로서의 철학전공자의 수는 미미하였으며, 그들의 전문성은 정착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해방 후 한국 현대 대학의 기초를 놓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식민지시대에 서구철학 전공자들은 해방 후 설립된 종합대학에서 철학과를 개설하고, 그 교과과정을 설정하고 교육함으로써 수많은 철학도들을 대량으로 배출하였다. 이리 배출된 철학전공자들은 한편으로는 서구적 가치와 이념과 학문적 정신을 한국정신사에 보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철학이라는 학문의 세계를 구축함에서 주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리하여 과거 1, 2기, 특히 2기의 철학도들은 이후의 한국현대철학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3기인 해방후 20년간도 순탄치 않은 시대였다. 분단, 전쟁, 분단의 고착화, 한국현대국가 형성을 위한 진통들, 4.19, 5.16 등의 정변. 이런 과정에서 서구 철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는 힘들었다. 이 시기는 서구의 다양한 사조들이 수용되며, 교육되는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서구 철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80년대 전문 분과학회가 구성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필자는 한국 철학자들에 의한 서양 철학의 수용과 연구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바를 지적하고, 그동안의 자세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 현대 한국의 정신세계, 한국인들의 사고를 보여주는 어휘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철학계, 사상계는 한국인의 현대적 의식을 근대화 현대화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00년전과 비교할 때, 우리 한국인의 정신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 담론의 장기일 역할을 하는 어휘들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전의 개념들은 거의 완전히 교체되었다 할 정도이다. 이제 이전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던 개념들이 한국인의 사고와 행동에서 주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유, 민주, 경제, 배분, 공정성, 과학, 이성, 평등, 정의, 권리 등의 개념들, 나

아가 정언명령, 이데아, 본질, 의미, 필연성, 실체, 확실성, 선험성, 정당화, 주체, 자아, 실존, 의지, 도덕적 갈등, 사실과 당위,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등의 개념들은 100년전만 해도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어휘들이었다. 이들 단어들은 당시 한국인의 어휘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인들의 사고를 인도하지 않았던 어휘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어휘들은 한국인의 사유와 행동을 규정하고 인도하는 범주적인 개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어휘들이 서구 철학의 기본 개념들로서 서구에서 연원한 것임에도 이제는 현대 한국인들의 사유에서 불가결한 범주와 사고 원칙, 가치가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서구 철학 수용노력이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 사회의 공적이고 명시적인 운영 원리는 삼권 분립 간에 서구적 원리이다. 개인주의, 권리, 자유, 평등, 경제적 분배의 공평성, 복지, 등 한국인의 실천과 사유의 축을 이루는 범주적 개념들의 다수는 서구적인 것이다. 이런 서구화를 문화적 식민주의라 규정하며 혹자는 비판할지 모르나, 세계사의 발전에서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 건전하고 균형잡힌 견해일 것이다.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아시아적 가치를 고수하면서 라다크와 같은 티베트의 은둔국으로 머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수동성과 폐쇄성을 벗어나 세계사의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입했어야 한다는 자성에 많은 평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는 이런 수동성과 폐쇄성으로 하여 상당한 대가와 희생에 치른 바 있다.

서구정신의 수용에 소극적이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한국이 세계사의 흐름에 편입하게 하는 데에는 철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이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기본권, 주체성, 권리, 공공성, 근대적 이성, 경제 정의 등의 개념들을 공급하고 그 개념들이 담고 있는 가치와 규범들의 정당성을 설명해 준 것은 폭넓은 의미의 한국의 철학자들, 사상가들이었으며, 그런 역할은 당연히 한 사회의 개념적 지도를 그리는 그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회에서 철학자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우주와 세계,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에 관한 개념적인 지도를 그리고, 이 지도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 그 길의 안전성과 당위성과 목표지향성을 확인해주는 일이 철학자들이 할 일이다.

한국의 철학자, 사상가들이 서구로부터 수용 공급한 개념들과 가치, 규범들로 하여 한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오랜동안 학생운동의 역사, 민주화를 위한 투쟁정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아시아의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에 앞서서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런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의

성숙성은 지식인들이 공급한 철학적 사상적 개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윤리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데는 현대의 지식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저류에 아직도 흐르고 있는 과거 조선조의 유교적 전통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것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초 서구철학 수용의 초기에는 서구문명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전통 사상은 잠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오랫동안 저변에서 잠류하던 전통의 물흐름은 이제 21세기의 문턱에서야 서서히 강물의 상부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현대철학에서 서양철학 수용자세의 문제점과 지향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 현대 철학사를 일견해 보건대, 한국의 철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은 단기적이고 심도가 열다는 것이 평자의 견해이다. 한국 철학계는 그동안, 거의 금주의 인기가요 식으로 현대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수입 소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심지어 서구 철학계에서조차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사조까지도 수입 수용하려는 조급한 감수성을 보여왔다. 이런 행태를 왕성한 지적 호기심의 발로라 칭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문제는 이리 수입된 철학들이 제대로 된 연구서는 커녕 소개서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둘째, 서구 철학을 수용하고 논의함에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서구적 가치나 서구 현대 철학의 뿌리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근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서구 철학이론과 사상들을 낳은 그들의 문제의식을 접할 수 있으며, 그들의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 철학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자세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령 서구 현대 철학을 낳은 문제들은 전혀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근원적 차이에 대한 자각은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이라 평가되곤 하는 동아시아의 철학과 사상들을 다시 평가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¹¹⁾

셋째, 결과로서의 이론보다는 동양철학과 사상의 문제의식,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연구만이 그런 공감적 평가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 평가와 이해에 도달할 때, 동양적인 것은 세계와 사회, 인간을 보는, 서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인류의 시야를 넓히는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적극적인 목표

11) 유교, 도교, 불교 등의 동양사상을 서구적 의미의 철학으로 분류하는 사고법의 문제점(위의 4의 (3))이 이와 관련있다.

가 설정될 수 있어야만이 우리 것에 대한 연구가 의미있다. 동양철학을 연구함에
서 진정으로 동아시아적인 것, 그러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
는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각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의 교과과정.

강영안, 『한국철학과 언어문제--철학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철학회편, 『한국현대철학 100년의 쟁점과 과제』, (한국철학회 99춘계학술대회보), 1999.

권용혁, 『서구철학의 수용과 '현실'개념: 신남철, 박치우, 박종홍을 중심으로』, 한국철학회편, 『한국현대철학 100년의 쟁점과 과제』, (한국철학회 99춘계학술대회보), 1999.

금장태, 강돈구, 『기독교의 전래와 서양철학의 수용』,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4호, 1994.

김재현, 『일제하부터 1950년대까지 맑스주의의 수용』,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5호, 1995.

김혜숙, 『한국어, 한국철학』, 『현대 한국에서 철학의 제문제』 (한민족 철학자 대회보 2), 천지, 1991.

김효명, 『영미철학의 수용과 그 평가』,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6호,

남경희, 『주체, 외세, 이념: 한국현대국가 건설기의 사상적 인식』, 이화여대출판부, 1995.

박영식, 『1900년에서 1965년까지의 인문과학으로서의 철학수용 및 그 전개과정』, 『인문과학』 26집, 197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박종홍, 『이인재론』, 박종홍전집 V, 1980, 형설출판사, 443면.

백종현, 『독일철학의 유입과 그 평가』,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6호, 1996.

백종현, 『독일철학의 유입과 수용 전개 1900-1960』,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5호, 1995.

백종현, 『서양철학의 수용과 한국의 철학』,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5호, 1995.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편, 『철학사상』, 4-6집, 1994-6.

심재룡, 『한국에서 철학하는 자세들』, 집문당, 1986.

양문흠, 『서양고대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6호,

유길준, 『서유견문』, 1895.

이기상, 『철학개론서와 교과과정을 통해 본 서양철학의 수용 1900-1960』.

이남인, 『실존철학, 현상학의 수용과 한국철학에 미친 영향』.

이인재, 『철학고변』, 1912.

이좌용, 『한국에서의 영미철학 수용의 특징과 과제』, 한국철학회편, 『한국현대철학 100년의

- 쟁점과 과제』, (한국철학회 99춘계학술대회보), 1999.
- 이진우, 「현실 인식의 역사성과 무역사성--대륙철학 수용 100년의 쟁점과 과제」, 180면, 한국철학회편, 『한국현대철학 100년의 쟁점과 과제』, (한국철학회 99춘계학술대회보), 1999.
- 이정직, 『康氏(칸트)철학 대략』, 1905.
- 이한우, 『우리의 학맥과 학풍』, 문예출판사, 1995.
- 이현구, 「개화기 유학자와 계몽운동가들의 서양철학 수용」,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4호, 1994.
- 이훈, 「서구철학사상의 유입과 그 평가」, 『철학사상』 4호.
- 이훈, 「연구를 위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4호, 1994.
- 이훈, 「맑스주의 수용 50년사」, 한국철학회, 『예속과 해방』(1995년 한국철학회 연구발표회 대회보), 1995.
- 장지연, 「철학가의 안력」, 『황성신문』 논설, 1909년 11월 24일.
- 정대현, 「실학적 방향: 한국철학의 쟁점과 과제」, 한국철학회편, 『한국현대철학 100년의 쟁점과 과제』, (한국철학회 99춘계학술대회보), 1999.
- 정대현, 『맛음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6.
- 조경란, 「중국과 일본의 서양철학 수용」,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4호, 1994.
- 조요한, 「서양철학의 도입과 그 연구의 성과」.
- 조요한, 「한국에 있어서의 서양철학연구의 어제와 오늘」, 숭전대학교철학회, 『사색』 3집, 1972.
- 조희영, 「현대한국 전기철학 연구-일제하의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1975.
- 최남선, 「百學名解」, 『청춘』, 창간호, 1914.
-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1987, 동명사, 하, 351면 참조.
-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연구』, 상, 중, 하
- 한국철학회 편, 『해방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1996, 제5부 「해방 50년의 사상적 반성」.
- 한국철학회편, 『한국현대철학 100년의 쟁점과 과제』, (한국철학회 99춘계학술대회보), 1999.
- 허남진, 「서양철학 수용기의 동양철학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5호, 1995.
- 허남진, 「서구사상의 전래와 실학」,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4호, 1994.
- 황경식, 「서양윤리학의 수용과 그 영향」,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6호.
- 황경식, 「한국 윤리학계의 연구현황 II(‘80-현재)」,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제7호, 1997.